

성화 밭: 성화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마6:31-34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성화

구원받은 우리는 성화의 여정으로 들어섰다.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새 본성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새 본성과 나의 옛 본성이 매일 갈등을 일으킨다. 성화는 새 본성의 욕구에 따라 성령님이 원하는 길을 걷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길이 쉽지 않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성도라 해도 악한 죄를 지을 수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다. 심지어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가 있다. 이런 악한 죄는 묵은 누룩이다. 삶에서 이를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은 한 마디로 교만과 위선을 제거하는 것이다. 내 능력 이상의 것을 추구하려는 것이 성화를 방해한다. 그를 찢어 꿰뚫어서 패망으로 이끌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오늘은 성화와 관련해서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려 한다. 스프로울의 기록함으로 나아가라의 3장,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 < >,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왜 의를 추구해야 하는가? 성화는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우리는 매일 결정을 내리며 살고 있다.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편리하다, 즐겁다, 유익하다 등등

그리스도인의 결정 기준: 내 결정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옳은 결정이 항상 편리하거나 즐겁거나 유익하지는 않다. 희생이 따를 때가 있다.

구체적인 예: 요즘 공병호 박사의 부정 선거 파헤치기가 절정에 다다랐다.

나보다 한 살 아래, 미국 라이스 대학 박사

2020년 4.15 부정 선거 의혹, 아마 가장 많이 파헤침

2021년 6.28 민경욱 의원 재검표, 수많은 부정 투표지 사례

배춧잎, 일장기, 인쇄해서 절단한 것, 본드로 붙인 것, 종이의 무게가 다른 것 등 다양한 종류의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

의를 추구해야 할 대법관들, 언론사 정치인 모두 침묵한다.

그런데 공병호 박사는 매일 여러 개씩 올린다. 공테일리를 보라.

그도 그리스도인이다. 왜 이럴까? 의를 추구해야 하므로

그래야 나라가 살 수 있으므로, 미래 세대가 좋은 나라에서 살 수 있으므로

그에게 존경을 표한다. 민경욱 전 의원에게도 경의를 표한다. 국투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런데 의롭게 살려고 하니 모진 핍박이 온다. 그러나 의롭게 살려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이번에 최재형 감사원장 출마, 왜? 문제인 정권을 경험하니 그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그도 편안한 삶을 살아도 되지만 의로운 전쟁을 하기 위해 정치판에 뛰어들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랑(고전13: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결정과 관련해서

부모, 교사, 지도자 등(영적, 정치적, 회사)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확실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된다.

구원받은 뒤 성화의 길로 들어간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사도 바울 행9:6)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혼란스럽고 실망스럽고 낙심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인간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일까?

마르틴 루터의 대답: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구원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복종하여 그분의 뜻을 이룬 것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영광을 보게 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의 구체적 의미(마5:16)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하면 세상 사람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본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실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롬2:24).

즉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사라지고 만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려 한다. 영광이란 무엇인가? 사전: 빛나고 아름다운 영에 하나님에게 적용되면 영광은 하나님의 내적 본성과 관련되어 있다. 본래 외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내적 본성이 밖으로 드러난 사건들:

모세의 떨기나무 사건, 홍해, 구름 기둥 불기둥, 외적으로 드러난 영광, 쉼카이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등은 모두 하나님의 내적 본성과 존재 자체를 말한다.

이것과 관련된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의이다(마6:33). 옳은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그분의 의를 실천해야 한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

스프로울: 교회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것: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교

복음적인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교를 듣기 어렵다. 많은 경우 교회는 의라는 말을 싫어한다.

영성, 경건, 도덕성 등 강조, 그러나 의에 대해서는 함구

충격적인 말: 신앙생활의 목적은 영성, 경건, 도덕성이 아니라 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영적 노력, 영적 능력, 영적 은사, 영적 훈련 강조: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영적 노력, 영적 능력, 영적 은사, 영적 훈련은 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매일 성경 읽기 10장, 기도, 주일 성수, 십일조, 그러나 의가 없으면 허사이다.

의라는 말: righteous(238), righteousness(306)

Right(옳다)에서 나옴

창7:1, 의로운 사람, 믿음에서 나오는 의로운 행위, 그래서 좌익이 될 수 없다.

창15:6, 믿음을 의로 판단하심

righteousness of God(8), 롬1:17, 3:5, 21, 22, 10:3, 고후5:21, 약1:20, 뵤전1:1

사전: 의롭다, 정의를 위한 의기가 있다.

하나님의 의: 100% 옳으시다. 바르시다. 옳으시다.

사람의 의는 이렇지 못하다. 사64:6,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구원받는다.

한자 의(義를) 보라. 양 밑에 내가 있으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문제: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 내 의는 없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아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의를 행하라고 요구하신다. 첫째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마 6:33).

살아 있는 믿음은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는다. 물론 이런 열매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는다. 이런 의는 구원받은 뒤 그리스도께 순종한 결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야 한다(요14:15). 그러면 의의 열매가 맺힌다(빌1:11).

마5:20을 보자. 여기의 의는 의로운 행위를 말한다.

이런 말씀을 읽고도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하면 안 된다.

핵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요구하신다.

바리새인들의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불의한 자들인가? 아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헌신하였다.

의를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명예, 재물 추구할 때 그들은 의를 추구하였다.

다만 목표가 잘못 설정되었다. 내부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의만 추구하였다.

바리새인들의 특징

1. 마23:23,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 하였다.

지금 십일조 문제, 십일조를 꼼꼼하게 챙겼다.

우리는 구약의 신정국가 체제가 요구하는 조세 개념의 십일조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 10분의 일을 드리는 것은 신구약 성도들의 의무라고 믿는다.

바리새인들 비판하는 성도들이 많다.

미국의 통계; 복음주의 교회 성도들 중 십일조하는 성도 4%

이런 상태에서 바리새인을 욕할 수 있는가?

물론 그들은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다.

“우리는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실행하느라 제대로 헌금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2. 요5:39,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여기의 너희는 유대인들, 구체적으로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가져오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 롬10:2-3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알려고 노력하였다. 연구하였다.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연구하는가? 연대기, 난해 구절, 의미 등

Bible believer라고 칭하는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읽는가? 재림과 휴거 부활, 천국과 지옥, 사탄 마귀들, 구원과 성화, 삼위일체 하나님 등에 대해 얼마나 탐구하고 알고 설명하는가?

바리새인들 이상은 해야 한다.

3. 눅5:33,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까? 하매

기도와 금식,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금식하는가?

이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바리새인들을 나무랄 수 있는가?

바리새인들은 의를 추구하기 절제하며 연구하며 기도하며 필요한 경우 금식도 하였다.

4. 우리의 의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커야 한다.

즉 우리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모두를 다 잘해야 한다. 정신만 지키려 하면 안 된다.

우리의 내부가 올바르면 반드시 외적으로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의는 구원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필수 요소이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뒤에는 의로운 행위로 인한 열매가 나타나야만 한다.

의의 추구는 그리스도인의 주된 의무이다.

구원받은 뒤의 결심: 나는 의롭게 살아야 한다. 옳은 일을 하고 싶다.

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새로운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드리고 헌신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물리치기 위해 싸워야 한다.

요약: 마6:33

배경: 의식주 염려하지 말라(31). 이방인들이 이런 것들 구한다. 6:26, 28 설명
이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6:11과 배치되지 않는다.

필요 이상으로 탐욕을 부리며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교도들처럼 기복 신앙으로 의식주 자동차, 아파트, 학교 달라고 하지 말라.

오직, 오히려 반대로, 즉 그것들을 구하는 대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것도 첫째로 구해라.
첫째로의 의미: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다.

여러 가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들 가운데 가장 먼저라는 의미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저는 형제님이 의사, 변호사 등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함, 살전4:3,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늑은 누룩을 버리라는 말이다.

결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그 뒤에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성화는 거룩하게 변해가는 평생의 과정이다. 우리는 의 측면에서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즉 날마다 더욱더 의로워져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신다.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된다. 날마다 의롭게 변한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 구원받으면 반드시 변해야 한다.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여 옳은 것을 따라야 한다. 좌(Left)가 아니라 우 right

여기에는 희생이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세상에서 옳은 것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번영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성화이다.